

#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東泉 金坪珍 연구\*

고광명\*  
kkm0630@jejunu.ac.kr

## 〈要旨〉

本研究では在日済州人の企業家をより一層明確に捉える必要があるため、日本の社会でホテル業と遊技業を営みながら済州地域の観光開発と教育発展、そして社会事業などに貢献した東泉金坪珍の経営精神と社会的貢献などを考察してきた。本研究の結果を要約すると、次のようである。

第一に、金坪珍は日本の社会で金海商事(株)などを営みながら在日済州人の資本を形成し、企業の社会的貢献をした企業家である。第二に、金坪珍は済州道における最初の済州観光ホテルを初めとして西帰浦観光ホテル、ハネムーンハウスなどを建設して済州地域の観光開発に寄与してきた。第三に、金坪珍は経営難で廃校の危機に瀕していた済州女子学園の経営を引き受けて女子教育の発展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第四に、一九七七年から二〇〇五年まで済州新聞社の会長に就任して近代的な施設を備えるなど済州道の言論分野の発展に寄与してきた。第五に、金坪珍は韓人経済の影響力を拡大しながらホテル業および遊技業に進出して莫大な資本を形成し、地域社会発展に大きな貢献をしてきた。第六に、金坪珍は初志貫徹、時間厳守、信用第一主義などの経営精神に基づいて金海グループを営んできた立志傳的な人物である。

以上のように、金坪珍は日本の社会でホテル業と遊技業などの経営活動を遂行しながら済州地域の観光教育・言論など、多分野において済州地域の社会発展に多大な貢献をしてきた企業家といえる。

主題語: 재일제주인(people from Jeju island in Japan), 기업가(entrepreneur), 경영정신(management spirit), 사회적 공헌(social contribution), 지역사회발전(community development)

## 1. 머리말

본고는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중에서 호텔업과 유기업(遊技業)을 통해 부(富)를 축적하고, 재일제주인(在日済州人)<sup>1)</sup>의 자본형성에 이바지한 東泉 金坪珍(1926.4.2~2007.3.29)의 기업가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김평진은 일본 간토(關東)지역에서 활동한 사업가로서 1967년 金海商事(株)를 시작으로 도쿄도(東京都) 타이토구(台東區)와 분교구(文京區) 등에서 7개 회사를 창업하여 상당한 경영성과를 이룩한 재일제주인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75-B00012).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1) 2009년 기준 현재 재일제주인은 재일한인 589,239명 중 93,162명으로 약 15.8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일한인 전체 중에서 경상남도 161,447명, 경상북도 118,479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入管協會(2009), 『在留外國人統計』.

그는 初志貫徹, 時間嚴守, 信用第一主義 등을 경영정신으로 삼았으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업종을 전환하는 전략적 사고를 지닌 기업가이다.

在日本濟州道民會(1993)에 의하면, 1991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제일제주인 기업가의 고액 소득자(법인)는 도쿄(東京) 4명, 고베(神戸) 2명, 오사카(大阪) 25명 등 총 31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평진은 제일제주인의 전체 신고액(12,634백만 엔) 중에서 1990년(171백만 엔)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361백만 엔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13,842 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sup>2)</sup>

김평진(金坪珍)은 1963년 외국인이 투숙할 만한 호텔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약 3천만 원으로 제주도에 현대식 시설(건평 2,890㎡)을 갖춘 제주관광호텔(현 하니크라운관광호텔)을 지었다.<sup>3)</sup> 이어서 그는 1964년 서귀포에 허니문하우스(현 파라다이스호텔)와 서귀포관광호텔을 연이어 건립해 제주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투자는 제일한인의 재산반입 동기가 되고 제주도 출신자들에게 애향심 발로의 가교 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1966년 운영난에 허덕이는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하여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갔고, 이후 1977년 제주신문사에 투자하여 언론의 지역발전과 문화 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sup>4)</sup> 결국, 그는 관광호텔을 건립하여 제주관광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여성교육의 요람인 제주여자학원 이사장을 맡은바 있고, 지방언론의 기수인 제주신문사 회장을 맡는 등 관광산업과 교육발전, 그리고 언론창달에 이바지하면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金海商社(주)<sup>5)</sup>를 비롯하여 湯島商事, 三榮物産, (주)과크사이드, (有)三陽후즈, 金海建物(유)<sup>6)</sup>, 88HACHI HACHI BLDG 등 金海그룹을 경영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제주지역의 호텔경영과 교육사업, 그리고 사회사업 등에 투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제일제주인 기업가였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제주인의 자본형성과 경영성과인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했던 김평진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제일제주인 기업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제시해 줄 것이다.

2)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濟州魂 :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3) 《제주신문》 1963년 10월 15일자.

4) 고광명(2010),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 『日本近代學研究』 第27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239.

5) 김평진은 일본으로 이주한 이후 1967년 東京都 台東區 上野에서 김해상사(주)(자본금 2,500만 엔, 종업원 450명)를 설립하여 과친코, 레스토랑, 카바레 등을 경영하며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在日韓國商工會議所(1997), 『在日韓國人會社名鑑』.

6) 金海建物は 1967년 東京都 台東區 上野에 설립하여 주로 부동산 임대업, 중개업을 경영하고 있는 유한회사이다. 統一日報社(1976), 『在日韓國人企業名鑑』.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공식·비공식 자료와 통계, 신문기사, 인터뷰조사(김평진의 처남) 등을 통하여 일본 사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고향에 애향심을 표현한 김평진의 기업가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조명하기 위해 김평진이 어떤 철학과 사고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하였는가에 대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기업가활동을 규명하는 것은 비단 제주도 출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일한인 기업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며, 특히 일본이라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활동한 재일한인 기업가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김평진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김평진의 경영정신과 자본형성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김평진의 사회적 공헌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김평진의 생애와 업적

### 2.1. 김평진의 생애

김평진은 1926년 4월 2일(호는 東泉, 본관은 金海金氏) 제주도 회천동(回泉洞)에서 부친 김정찬氏와 모친 고영포氏의 3남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각지를 전전한 후 19세 때 동향의 여성과 결혼하여 부인 박윤규氏 사이에 자녀 5남 2녀를 두었다.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여 사업가(4남·2녀)와 의사(5남)로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했으며 서당에 들어가 한학을 공부하다 8세 때 삼양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중산간 마을인 회천에서 산길을 오가며 통학하는 소년의 머리에는 바다 건너 어디엔가 청운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넓은 무대가 자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먼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었다고 한다. 배불리 먹으며 마음 놓고 활동하고 공부할 수 있는 땅은 어디인가? 소년의 동경은 한없이 뻗어갔다.)



<사진 1> 재일제주인 기업가 동천 김평진

그러나 그에게는 좀처럼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15세 되는 해 일본 도쿄로 건너가 친형 김평식(金坪植)의 사업을 도우며 틈틈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갔다. 이를 계기로 그는 사업경영에 대한 경험을 터득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에게는 이 기간이 지난날의 실의를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20세 되는 해 김평진은 드디어 형의 곁을 떠나 자립의 길로 들어섰다. 그가 처음에 손을 댄 것은 영세 자본으로 가능한 행상(行商)이었으며, 일용잡화를 걸머지고 거리와 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이후 자전거가 생기고 리어카가 생기면서 장사하기가 훨씬 편해졌다. 그리고 절약하고 참고 견디는 인고의 세월이 이어지면서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행상을 한지 2년 만에 자기 집을 마련한 그는 그동안 벌여놓은 자본을 밑천으로 삼아 사업계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다. 신용을 내건 김평진의 사업은 그야말로 일취월장(日就月將)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하는 고향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인상을 주는 한라산의 아늑한 정경과 푸른 들판,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바다를 늘 머리에 그리곤 했다. 이러한 향수는 어느새 애향심으로 승화되고 뭔가 고향 제주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sup>8)</sup>

한편 박윤칠과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sup>9)</sup>, 동천 김평진은 1940년 15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역경을 뚫고 자수성가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끝으로 1942년 3월 도쿄(東京) 오시마중학교(大馬中學校)를 졸업하였다. 이후 그는 1945년 이전 오사카 비누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1946년 10월부터 우에노(上野) 비누공장에서 비누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며, 1959년 8월 김해철공소 등을 직접 경영하면서 크게 성공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생활필수품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만든 비누가 잘 팔리게 되면서 그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비누공장이 성행한다는 조짐이 보이면서 큰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영난을 겪어야만 했다. 얼마 후 그는 조그마한 라면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가게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가게는 협소한 공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초밥집인 옆집을 매입하여 가게를 확장했고, 다방도 새로 개점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 번째 점포를 개점할 수 있었다. 이 무렵에는 완전히 사업 기반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7)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pp.1128~1131.

8)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위의 책, pp.1334~1336.

9) 박윤칠(김평진의 처남) 인터뷰조사 《2007년 8월 3일, 도쿄 파크사이드 호텔》.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이후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기 위해 그는 유기업(パチンコ)이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기업 경영을 개시하면서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비즈니스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sup>10)</sup>

그 이후 그는 1961년 8월 재일제주개발협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제주도의 소득 원천인 감귤묘목 보급<sup>11)</sup>, 기술지원, 제주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현지 및 일본에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상호우호 증진에 노력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 동포 학원인 在日東京韓國學院 이사장, 1964년 2월 東京商銀信用組合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더욱이 제주도에서는 1964년 3월 처음으로 국제규모를 갖춘 제주관광호텔을 개관하여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서귀포에 있는 허니문하우스 인수, 현대식 호텔인 서귀포관광호텔을 건립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탁월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하여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관광호텔을 건립했다는 점이다.

1966년 7월에는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하여 1995년 11월 2일까지 이사장을 맡아 오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2007년 3월 29일 숙환으로 타계하였다.<sup>12)</sup> 특히 그는 金海商事(주), 湯島商事, 三榮物産, (주)파크사이드, (有)三陽후즈, 金海建物(유), 88HACHI HACHI BLDG 등에서 회장으로 활동했고, 1977년 제주신문사(현 제주일보) 회장으로 취임하여 지방 언론계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김평진은 1998년 5월 27일 제주대학교 개교 46주년을 맞아 개교기념식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도일하여 자수성가한 재일제주인 기업가로서 지난 1966년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한 이후 이사장에 취임하여 제주지역 여성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는 초석을 다졌다. 1981년에는 재일한국교육재단 고문으로서 재일한인 2세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해 국가관과 역사, 발전상을 가르쳤다. 그리고 1982년 10월 在日韓國人商工聯合會 회장을 맡으면서 올림픽 지원금을 모금하는 활동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평진은 1963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국민장(國民章)을 비롯하여 1968년 국민훈장 동백장(冬栢章), 1981년 모란장(牡丹章), 1987년 무궁화장(無窮花章)을 수상한 바 있다.<sup>13)</sup> 결국, 그는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경영활동과 모국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해석된다.<sup>14)</sup>

10)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 말글빛냄, p.288.

11) 제주발전연구원(2007),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p.40.

12) 《제주일보》 2007년 3월 31일자.

13)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pp.255~321.

14) 제주여자고등학교(2001), 『제주여고 50년사』, pp.292~297.

## 2.2. 김평진의 동상 제막

동천 김평진 이사장 동상은 1987년 5월 13일 본교 정문에 들어서면 바로 정면(제주여자 중학교 동백공원 입구)에 건립되었다. 동상은 재일제주개발협회에서 그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흉상(胸像)이다. 높이 54.5cm, 가로 33cm, 세로 23cm의 크기이며, 김공천(1979.3.16~1987.2.28) 전임 교장이 지은 공덕비문(頌德碑文)은 다음과 같다.<sup>15)</sup>

그 키 그만쯤으로 더 없이 어울린다  
 回泉물로 자란 少年 靈峰 漢孥의 바람품고  
 옛 겨레가 일군 異國에 건너가 발을 붙여  
 不屈經營 五十星霜에 우뚝 솟은 巨木이여  
 愛鄉의 精誠넘쳐 濟州開發 앞장서고  
 公論의 장을 열어 하룬들 쉬었으랴.  
 育英의 이 넓은 마당 젊은 꿈들 가득 핀다.  
 祖國의 平和統一 그 念願의 발길 잦고  
 日本의 坊坊曲曲 同胞의 商工 부추기네  
 그 입의 무거움은 저 漢孥山 닮았구나  
 進甲에 새로운 歲月을 지켜보는 그 눈매여



<사진 2> 동천 김평진 이사장 동상

위의 송덕비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개발과 교육사업의 공을 기리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이사장의 생애 업적과 지역사회 공헌은 당시의 제막식에 참석한 인사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주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3일 상오 11시 제주여고 실내 체육관에서 박부찬(朴富贊) 부지사, 고봉식(高奉湜) 교육감, 신주현(申周鉉) 도경국장, 김대성(金大成) 제주신문사 사장 등 각계 인사, 그리고 박병헌(朴炳憲)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중앙본부단장과 임원, 강경준(姜京俊) 재일제주개발 협회장과 회원, 제주여자중고등학교교육성회 임원, 교직원,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략) 박병헌 단장은 축사에서 동천 김평진 선생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과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한인사회에 심는데 공헌했으며, 남다른 애향심으로 70만 재일

15) 공덕비는 1987년 5월 13일 고향 제주도의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在日本濟州開發協會有志一同(동상건립기금 회사자 20명)에 의해 건립된 동상이다. 제주여자고등학교(2001), 『제주여고 50년사』, pp.296~297.

한국인에게 지역개발의 불을 조성했다고 치하였다. 이에 김평진 선생은 재일한국인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고향의 문화 및 육영사업에 노력해 오늘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하였다.……

그러나 이 동상을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김평진 전 이사장의 겸허한 뜻을 받아들여 2001년 6월 11일 오전에 철거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그는 재일제주인 기업가로서 독특한 신념과 경영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김평진의 경영정신과 자본형성

#### 3.1. 김평진의 경영정신

기업에는 제각기 독특한 경영정신이 있다. 대개 기업가의 경영철학이나 경영신조에서 나오는 경영정신은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종업원 전체의 공감대로 정착하여 그 기업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 더욱이 경영정신은 기업가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개인적 신조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정신이라 함은 창업자가 기업경영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 지주, 기본적 가치, 실천적 행동지침, 신념, 태도 등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통하여 지켜야 할 정신적 및 실천적 행동지침이며, 경영철학, 경영사상과 미래 지향적인 행동원리, 지도 원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기업가의 가치관이나 경영철학, 사상 등을 정신적 신조로 삼아 구성원의 실천적 경영 지침을 경영정신으로 명시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로서 대부분 경영정신은 사훈, 좌우명, 생활신조, 사시(社是), 경영철학, 경영사상, 창업이념 등 정신적 가치관과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경영행동 실천 강령 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표시되지만 그것이 경영정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sup>16)</sup> 그런 의미에서 김평진은 몇 가지의 뚜렷한 신념과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영정신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으나 그의 경영정신은 ‘初志貫徹’, ‘時間嚴守’, ‘信用

16) 고승희 외(1999), 『아산 정주영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p.32.

第一主義' 등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겠다.

### 3.1.1. 初志貫徹

初志貫徹은 최초로 정한 뜻을 밀고 나아가 목적을 이룬다는 뜻으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오로지 인내로써 초지(初志)를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말이다(處變當堅百忍以圖成).

김평진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면 무언가 큰 것을 하려는 생각을 계속 품어왔다. 그는 소년시대에 원대한 희망을 갖고 매일 마음을 굳게 가졌다. 그래서 그는 1942년 15세에 고향 제주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어른이 되면 꼭 무언가를 하고 싶다. 거기에는 제주도와 같은 작은 섬에 있으면 안 된다며 자기 자신의 희망을 추구하기 위해 한발자국씩 나아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자신의 결의를 가다듬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 중이어서 소년의 꿈이 무참히도 무너지는 비상시였다. 그는 큰 희망을 누구보다도 믿어 주었던 모친의 죽음으로 가장 큰 좌절을 느꼈으며, 또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大攻襲)으로 살고 있었던 집도 타버렸다. 이후 도쿄에서 겨우 이바라기현(茨城県)으로 이사했지만 그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희망을 2년 정도 미룬 채 그의 마음을 스스로 가다듬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당시 도쿄는 전후(戰後)의 혼란과 격동기에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마저 힘든 시기였지만 그는 모든 곤란을 이겨내고자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과의 생활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고 밤낮으로 흔들림 없이 견고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것이 현재 세제(洗劑)라고 불리는 물비누(水石鹼)였다. 그는 이것을 도쿄 도내의 각 상점을 돌면서 팔았으며, 드디어 자신의 점포를 갖기까지 발품을 팔면서 생활을 유지해 왔다.

당시는 누구라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때 그는 생애 중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사람의 기본이나 손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소년시절에 막연히 무언가 하자. 인생을 관철하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여 품고 있었던 마음의 의지대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상인으로서 나의 인생에서 귀중한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항상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람에게 접근해야 한다.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인간은 대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인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항상 당연한 일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몸에 배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의 비위를 맞추라고 말하기보다도 세심한 배려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한다. 금전의 유무나 신분의 고저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이 아무리 부자라도 상대방과는 관계가 없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모두 동등하게 성의를 갖고 대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초지관철이 되었을 때 어떠한 힘든 나날을 보내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sup>17)</sup> 따라서 그것은 한마디로 어두운 시대에 자라면서 찌든 가난과 자신의 못 배운 한을 후손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는 강인한 집념과 철학의 소산에서 나타난 표현일 것이다.

### 3.1.2. 時間嚴守

김평진은 성격적으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인생에서 시간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시간 약속의 이행불이행(履行不履行)은 전부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일부분 헤아리는데 하나의 척도가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항상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어떤 사람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좌우지간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일을 하면서 이것이 기회라고 인식하여 그것을 무시해서는 아무런 일다운 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는 어떠한 사업인 경우에도 시간과 스피드와의 결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른바 찬스(Chance)는 두 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추진해야 될 시기나 후퇴해야 될 시기에 임기응변으로 타격을 보더라도 승자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sup>18)</sup>

### 3.1.3. 信用第一主義

김평진은 지금까지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직을 무기로 한 경영정신이라고 술회한다. 그리고 신용, 근면, 절약 중에서 신용을 생명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항상 신용제일주의를 기본신조로 삼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착실히 실천적 행동으로 이행하였다. 그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신용을 생명으로 알고 행동에 옮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박윤칠(김평진의 처남)과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

17) 鶴岡正夫(1981), 『在日韓国人の百年—私の生活信条』, 育英出版社, pp.160~163.

18) 韓日問題研究所編(1987), 『在日韓国人三百六十人集—在日同胞現代小史』, p.105.

면, 그는 일본 금융기관에서 1959년 1차 1억 5천만 엔, 2차 3억 5천만 엔, 1981년 1억 8천만 엔을 신용으로 빌렸다고 한다. 또한 그는 당시 음식점 부문에서 납세실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거래가 좋았다고 한다.<sup>19)</sup>

이처럼 그는 해방 이후 최근까지 50년 간 이상을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일제주인 기업을 성장·발전시켜 왔다. 그가 김해상사(주)를 비롯하여 湯島商事, 三榮物産, (주)파크사이드, (有)三陽후즈, 金海建物(유), 88HACHI HACHI BLDG 등 7개 회사 등을 차례로 설립·운영하여 괄목할만한 영업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신용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의 탁월한 경영전략과 실천적이고 추진력 있는 기업경영의 결과였던 것이다.

따라서 김평진은 초지관철, 시간엄수, 신용을 기본정신으로 삼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폭넓게 기업가활동을 수행하였다. 그의 경영정신은 재일제주인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에서도 항상 신용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고객우선, 근면, 절약에 대해 몸소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그가 재일제주인 기업가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초지관철, 시간엄수, 신용제일주의에 의한 경영관을 스스로 실천하였으며, 근검하고 합리적 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측된다.

### 3.2. 김평진의 자본형성

제주도 출신들은 오사카를 근거지로 삼아 상공업 진출이 두드러졌는데 소규모 자본을 축적한 이들은 고무, 유리, 유지, 피혁, 섬유, 잡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까지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나갔다. 그 중에서도 고무는 생산설비가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가장 먼저 가내수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일부 재일제주인은 가내수공업을 통해 적지 않은 재력을 모았지만 1949년 후반부터 일본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대형 제조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고무공장이 점차 소멸되었다. 이후 이들은 음료, 유기업, 대중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그 중에서 파친코 사업은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금 회전율도 빨라서 사업기반이 취약한 재일제주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sup>20)</sup>

하지만 1950년대 중반 일본 정부의 규제에 많은 파친코 사업체가 도산하였으나 재일제주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민족계(民族系)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21)</sup> 이들

19) 박윤철(김평진의 처남) 인터뷰조사 《2007년 8월 3일, 도쿄 파크사이드 호텔》

20)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pp.60~61.

은 그 덕택으로 파친코업계를 점차 장악하면서 견실한 사업기반을 구축해나갔고,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일본에서 건전한 오락문화로 정착시켜 나갔다. 전후 일본에 남아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많은 한인들이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또한 상당수의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에서 온갖 차별 속에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부류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에 건너가 어려운 속에서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여 일본에서 대기업을 창업시킨 기업가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이주 초기 양곡판매점, 잡화상, 공장노동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고무, 유리 관련 가내수공업, 신발공장, 봉제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힘들게 자본을 형성해 왔다. 1970년대에 이르면서 1세 기업가들은 2선으로 물러나고 지금은 2~3세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독특하게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설비, 조선업, 관광업 등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sup>22)</sup>

<표 1>에서 보면, 당시(1991년 기준) 일본에서 고액 신고자는 도쿄 4명(4,981백만 엔), 고베 2명(1,348백만 엔), 오사카 25명(6,305백만 엔) 등 총 31명으로 대부분 회사들이 오사카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신고 금액을 보면, 전체 12,634백만 엔 중에서 제주시 6,456백만 엔(9명), 한림읍 2,031백만 엔(5명), 남원읍 454백만 엔(4명), 표선면 1,689백만 엔(3명), 대정읍 1,201백만 엔(3명), 조천읍 172백만 엔(2명), 나머지 애월읍 390백만 엔, 한경면 102백만 엔, 서귀포 49백만 엔, 구좌읍 49백만 엔, 성산면 41백만 엔 등은 각각 1명으로 제주시 출신이 50% 이상 신고하였다. 개인별 신고금액은 1990년과 1991년 기준으로 김평진이 경영하는 김해상사가 다른 기업가에 비해 많이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일본 내 전체 신고액 12,634백만 엔 중에서 361백만 엔을 신고함으로써 개별 기업가로서 제1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1991년도 재일제주인 신고금액으로 보더라도 재일제주인은 한인경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며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21) 梁京姬(2009), “在日韓国人企業家が韓国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國朝鮮研究』 第9号, 現代韓國朝鮮學會, pp.16~30.

22) 고헌명(2010), 앞의 논문, p.239.

&lt;표 1&gt; 재일제주인 소득신고 순위(1990년과 1991년)

(단위 : 백만 엔)

順位	會社名(所在地)	代表者(出身地)	1990년 신고금액	1991년 신고금액	일본 내 순위
1	天馬(東京)	金鳳根(濟州市)	4,228	4,462	1,121
2	富士電線(大阪)	康忠男(表善面)	866	875	5,562
3	平和産業(神戸)	姜順贊(翰林邑)	412	755	6,451
4	大邦興業(大阪)	李鼎根(大靜邑)	676	719	6,758
5	星田골프(大阪)	金致富(濟州市)	3,836	710	6,854
6	富士電販(大阪)	康忠男(表善面)	614	666	7,302
7	平和고무(神戸)	姜順贊(翰林邑)	412	593	8,271
8	盛宏(大阪)	安仁淳(濟州市)	523	461	10,717
9	光住建(大阪)	姜哲熙(涯月邑)	122	390	12,795
10	共榮産業(大阪)	李純安(大靜邑)	244	369	13,603
11	金海商事(東京)	金坪珍(濟州市)	171	361	13,842
12	南海會館(大阪)	金昌仁(翰林邑)	132	340	14,667
13	朝日사이렌(大阪)	康贊旭(翰林邑)	412	282	17,691
14	藤田土地(大阪)	金良雄(濟州市)	59	233	21,381
15	日本有機(大阪)	安在祐(表善面)	142	148	33,461
16	ABC觀光(大阪)	梁熙晋(南元邑)	127	141	34,986
17	近畿自動車教(大阪)	金奉逸(朝天邑)	117	114	43,129
18	大德企業(大阪)	李林根(大靜邑)	99	113	43,470
19	그랜드觀光(大阪)	梁熙晋(南元邑)	78	112	43,486
20	共和紙料(大阪)	金永孝(南元邑)	109	107	45,471
21	松岡단추(大阪)	李寬珩(翰京面)	53	102	47,835
22	第一觀光(東京)	梁熙晋(南元邑)	78	94	51,906
23	愛三産業(東京)	白昌鎭(濟州市)	94	64	74,089
24	眞田化工(大阪)	愼在孝(濟州市)	60	62	76,087
25	丸和(大阪)	吳文弼(翰林邑)	-	61	78,105
26	大信(大阪)	韓長淑(朝天邑)	41	58	81,535
27	新井고무(大阪)	朴達炯(濟州市)	56	55	84,416
28	東洋産業(大阪)	朴東烈(西歸浦)	-	49	93,708
29	昌慶苑(大阪)	金其彦(旧左邑)	-	49	95,145
30	第一化成(大阪)	金富雄(濟州市)	-	48	96,755
31	東京運輸(大阪)	金達孝(城山邑)	43	41	111,185

자료 :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 濟州魂 :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 4. 김평진의 사회적 공헌

기업은 사람, 땅, 돈, 자원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급받는다. 기업은 이것들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활용해서 국내의 어떤 기업의 제품보다 양질의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 공급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쏟는다.<sup>23)</sup> 그와 같은 경영 노력의 성과를 세금과 임금 그리고 배당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그 나머지를 이윤으로 축적해서 기업발전의 재원으로 쓴다. 이처럼 기업의 공헌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풍족한 제공이며, 고용과 소득 기회의 확대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재원을 이루는 납세의 세원 조성이다. 곧 기업은 수익을 축적하여 새로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확대재생산해 나감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은 경영의 성과를 세금과 임금, 배당, 지역사회 등으로 분배하여 국가 운영의 기초를 풍부하게 하면서 기업 자체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다.

#### 4.1.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

제주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점으로 역사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경제·문화의 이해 등에 대한 인적자원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8·15해방, 4·3사건, 6·25전쟁 등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우리 민족과 제주지역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한몫을 했다. 거기에는 우리 민족과 제주인의 가슴속에 일본 식민지 36년 동안의 억압된 생활에 좌절하지 않고 힘겹게 이어온 민족의 저력과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여자학원은 1946년 제주고등여학교로 개교하고, 1947년 제주여자 초급중학교 인가와 함께 재단설립 인가를 받았다. 1951년 8월 31일에는 제주여자고등학교 6학급 인가를 받고 동년 9월 25일 제주 최초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본 학원은 호은(湖隱) 김홍빈(金弘斌)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1946년 2월 10일에 설립되었다. 초대 이사장으로 김인현(1946.2.10~1964.12.26)이 취임한 이후 김승전(1964.12.27~1965.5.18), 김인경(1965.5.19~1966.8.8) 이사장에 이르는 동안 설립자 형제간의 학교경영에 대한 의견과 불화가 심각해지면서 제주여자학원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때 재일제주인 기업가 김평진은 형님인 김평식(당시 제주관광호텔 사장)의 주선으로 1966년 7월 제주여자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수하게 되었다. 동년 8월 15일 본교 강당에서 김평진 이사장의 성대한 취임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정우식(鄭雨濤) 도지사, 최정숙(崔貞淑) 교육감 등 30여명의 기관장이 참석하여 제주여자학원 제2의 출발

23) 삼성경제연구소(1989), 『호암의 경영철학』, p.6.

을 축하했다.

김평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전직 이사장들의 공적을 이어받아 이 학교를 타교에 손색이 없는 선구적인 위치로 올려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현재의 빈약한 학교시설은 현황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취임사의 공언대로 1972년 아라동 현재 부지로 이설하여 당시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학교로 거듭나게 된다.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할 당시 김인호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김평진은 학원 인수 후 전교 직원에게 양복 한 벌 값에 해당하는 8천원을 지급했으며, 전교직원에게 ‘인화(人和)와 화합(和合)’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출발한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이사진은 김평식, 강주철, 채원배, 김계남, 이경수, 홍성립씨 등 6명이 선임되었다.<sup>24)</sup>

현재는 장남 김화남(金和男)<sup>25)</sup>이 제주여자학원 이사장(1995.11.3~현재)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당시 김화남 이사장은 취임 기념사업으로 제2도서관과 시청각실, 중강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증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김평진(전 이사장)이 연로한 점도 있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면에서 젊은 이사장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사장 취임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학원은 김화남 이사장의 취임으로 인해 전 이사장의 업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본교가 한층 더 활기 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4.2. 관광개발에 대한 공헌

1962년에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한 제일제주개발협회의 향토방문단은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 각지에서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박정희)을 예방했다. 박정희는 제주도의 관광개발에 관해서 역설하면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지만 수용 태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배석했던 김영관(金榮寬)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기술자를 초청했을

24)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제주여자중학교 외(2006), 『건학 60년』, pp.393~394.

25) 김화남 이사장은 1945년 12월 7일 동경에서 출생하여 1967년 일본 立教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예체능에 매우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키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선수로 출전할 정도로 뛰어났고 기타 연주도 수준급이다. 1967년 김해상사 주식회사에 입사하고 서귀포관광호텔 사장을 역임하면서 경영에 발을 들여냈다. 1977년에는 (주)김해상사 대표 취체역에 취임하고, 1990년에는 재일본 한국인청년상공연합회 회장을 맡아 민단(民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1991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1995년에는 재일본 제주도민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동년 11월 3일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제1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때도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는 초가집 여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수 없이 도지사 관저에 숙박하게 했습니다. 중앙에서 귀빈이 오시더라도 숙박할 시설이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현대적 설비를 갖춘 만족할만한 호텔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재일한인 중에서 호텔을 지어줄 분이 없을까요?”하고 말을 꺼냈다. 그때 김평진(재일제주개발협회 회장)은 즉석에서 “내가 제주도에 근대적인 호텔을 짓겠습니다.” 하며 박의장에게 진언했다고 한다.<sup>26)</sup>

그 이후 그는 1964년 제주관광호텔(현 하니크라운관광호텔)을 건립하여 제주도 최초의 본격적인 관광호텔로서 관광사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관광개발 붐의 기폭제가 되었다.<sup>27)</sup> 관광호텔 건설에는 한국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평진은 다른 유익한 사업에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며 보조금을 거절하고 모두 자력으로 완성했다. 비록 객실 33개의 작은 호텔이었지만 쇼핑몰, 커피숍, 레스토랑 등을 갖춘 최신식 호텔을 건설하였다. 당시 이 호텔에 대한 소문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면서 호텔을 구경하기 위해 초등학교생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제주도에 수 킬로미터 떨어진 먼 거리를 왔었다고 한다. 결국, 김평진은 개발초기 제주도에 호텔을 건설하면서 관광산업의 인프라 정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가였다.<sup>28)</sup>



<그림 3> 제주관광호텔(현 하니크라운관광호텔) 개관 <그림 4> 서귀포관광호텔(현 허니문하우스) 건립

26)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 말글빛남, pp.269~271.  
 27) 제주도 관광개발 사업은 재일제주인의 지원으로 인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1960년 6,600명에서 2007년 543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07년도 관광 수입은 2조 2,144억 원으로 제주도 지역 총생산 8조 696억 원의 27%를 차지했다. 결국, 제주도 관광 수입은 동 년도 제주도 예산의 8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28) 재일한인의 제주도 방문은 1961년 100명 미만이었지만 1962년 542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1969년 제주~오사카 간에 직행 항공편이 개설되면서 1970년 4,588명, 1971년 5,477명, 1972년 5,821명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재일한인 방문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제주도에 대한 투자와 기부 건수도 증가했다.

### 4.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은 제주도·제주도민들과의 물질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지연(地緣)·학연(學緣)·혈연(血緣)적 결속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교류를 의미한다. 이것은 재일제주인의 애향심, 고향인 제주도와와의 연대,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동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여 왔다.<sup>29)</sup>

재일제주인의 기증실적은 전체적으로 교육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사업, 즉 새마을 사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증이 가장 활발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초 개발단계에서는 도로, 전기·전화, 상·하수도 개설 등과 같은 생활기반 조성사업, 새마을 사업, 감귤농장 초기 조성, 마을개발, 교육·문화 등이 제주도 발전에 커다란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1980년 이후에서 1990년대 사이에 교육사업 분야가 두드러지는 것은 기증 초기의 생활시설 사업 및 생활향상 수준에서 벗어나 제주도 경제가 발전됨으로써 교육 분야와 같은 미래 지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증 동기도 초기의 동정적 애향심, 경제적 우월성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취에 대한 과시와 사회적 명예, 체면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일제주인의 기증이 제주도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오히려 미미하다. 이는 재일제주인의 기증현상에 대해 무감각해져 가거나 나아가 의존심의 강화, 기대욕구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잠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이 형제애·상호 동반적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이고 물질적 제공의 존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게다가 수혜자인 제주사회의 기증에 대한 사후처리나 심적 보상에 대한 무성의한 대처로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sup>30)</sup>

지금까지 재일제주인은 향토발전을 위해 육영사업, 감귤진흥, 전화·전기, 수도, 도로포장, 문화·체육·새마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다. 이러한 재일제주인 중에서 김평진은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하기 이전에도 제주개발을 위한 활동을 여러 면에서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표 2>에서 보면, 김평진은 1962년 5월 회천분교에 비품(678천원)을 회사한 것을 비롯하

29) 고팡명·진관훈(2006),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제14(1)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48~181.

30) 김희철·진관훈(2007), “재일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 기증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13집,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01~124.



여 1963년 제주도에 벚꽃 묘목 15,000본, 동년 삼양초등학교와 회천분교에 비품, 1963년 제주개발 기금(4,500만 엔)과 감골묘목, 1965년 제주도청에 교환대와 전화기, 1966년 회천분교에 교실 건축부지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인수 이후에는 1972년 새마을 사업 성금(300천원), 1978년 2도동사무소 비품(200천원), 1984년 전국소년체전 성금(20,000천원), 2001년 월드컵경기장 건립기금(3,000천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주도간의 사회적 결합의 강도를 파악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치고 재일제주인의 기증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김평진의 기증은 수혜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 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제주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표 2> 동천 김평진의 기증실적 내역

(단위 : 천원, 개)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기증년도
제주도청	전화기교환대	현물	940	61	제주도청 전화시설	1965
제주도청	사업 성금	현금	300		새마을 사업 성금	1972
제주도체육회	성금	현금	20,000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	1984
삼양동	건립 기금	현금	600		삼양초등학교 건립	1963
삼양동	피아노	현물	60	1	삼양초등학교 비품	1964
삼양동	오르간 외	현물	35	2	삼양초등학교 비품	1963
삼양동	오르간	현물	25	1	삼양초등학교 비품	1964
봉개동	오르간사이렌	현물	678	2	회천분교 비품	1962
봉개동	신축 기금	현금	605		회천분교 신축	1966
2도동	등사기	현물	200	1	2도동사무소 비품	1978
서귀포시	건립 기금	현금	3,000		월드컵경기장 건립 기금	2001

자료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鄉의 보람』에서 필자 조사 작성.

## 5. 맺음말

본 연구는 김평진이란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일생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어떤 경영철학으

로 일본사회에서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에 기여했으며, 또 제주도에 대한 그의 애향심이 제주도 발전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면밀히 고찰한 것으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행동패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평진은 제주도에 외국인이 투숙할만한 호텔이 없어 1964년 제주도 최초의 제주관광호텔을 개관한 이래 허니문하우스와 서귀포관광호텔을 개관하여 제주도의 관광개발에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제주관광의 미래를 설계한 탁월한 식견의 소유자였다.

이 외에도 그는 1966년 경영난으로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던 제주여자학원의 경영을 맡아 여성교육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1977년 제주신문사 회장으로 취임하여 지방 언론계를 이끌면서 제주도 언론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또한 그는 제주개발에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 쏟아 신품종 감귤묘목을 보급하는 한편, 제주도 농민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일본 농원에 파견시켜 재배기술을 익히도록 배려하였다. 더욱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여 제주애향운동장 건설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1982년 5월 재일본 동경한국인상공연합회 회장, 동년 10월 재일 한국인상공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그는 1992년 재일제주인 소득신고 순위(법인회사)에서 일본 국제청에 3억6천만 엔의 소득을 신고할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 건실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평진은 일본 사회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영정신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면서 제주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결국, 그는 김해상사(주), 파크사이드 호텔 등 여러 사업의 기업가활동을 수행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제주지역의 관광사업과 교육사업 그리고 사회사업에 투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였다고 볼 수 있다.

### 【参考文献】

-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고광명(2010),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 『日本近代學研究』 第27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217~242.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제주인의 상공업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제14(1)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48~181.  
 고승희 외(1999), 『아산 정주영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김희철·진관훈(2007), “재일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 기증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13집,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01~124.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 말·글빛냄.  
 삼성경제연구소(1989), 『호암의 경영철학』.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 濟州魂 :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鄉의 보람』.  
 제주발전연구원(2007),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제주여자고등학교(2001), 『제주여고 50년사』.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제주여자중학교 외(2006), 『건학 60년』.  
 《제주신문》 1963년 10월 15일자.  
 《제주일보》 2007년 3월 31일자.  
 박윤칠(김평진의 처남) 인터뷰조사 《2007년 8월 3일》.  
 『1,000万円を越える高額納税者全覽』, 清文社.  
 梁京姬(2009), “在日韓國人企業家が韓國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國朝鮮研究』 第9号, 現代韓國朝鮮學會, pp.16~30.  
 永野慎一郎編(2010), 『韓國の經濟發展と在日韓國企業人の役割』, 岩波書店.  
 入管協會(2007), 『在留外國人統計』.  
 在日韓國商工會議所(1997), 『在日韓國人會社名鑑』.  
 統一日報社(1976), 『在日韓國人企業名鑑』.  
 鶴岡正夫(1981), 『在日韓國人の百年—私の生活信条』, 育英出版社.  
 韓日問題研究所編(1987), 『在日韓國人三百六十人集—在日同胞現代小史』.

<필자인적사항>

고광명

근무처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직 위 : 특별연구원

주 소 : <690-7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전화번호 : 064)754-4788

핸드폰 : 010-9838-0512

---

논문투고일 : 2010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0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0년 10월 10일  
 2차 수정일 : 2010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0월 25일

---